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소*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온타리오주의 수세인 마리에 위치해 있는 Algoma university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의 규모는 생각했던 것 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 수업 교실등도 깔끔하였습니다. 학교내에 카페도 있어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세인마리 지역 사람들이 친근하고 친절하였습니다. 대학교의 선생님들 역시 친절하시고 융통성있게 스케줄을 조절하셨습니다.
수업	전반적으로 activity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봉사활동, 축제참여(colour blast), 딸기농장체험 등의 활동을 하고 둘째주부터는 활동보다는 수업비중이 컸습니다. 수업은 문법, 자주쓰는 어구, 그 학교에대한 역사, 듣기(음악듣고 종이 배열 순서 맞추기), 발음연습등을 수강하였습니다. 저희는 10명의 소수로 갔기 때문에 분반은 하지않고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법수업 같은 경우에는 ,와.의 쓰임에 대해서, 학교에대한 역사같은 경우는 학교역사에대해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적었고 발음연습은 s,es,z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과제는 activity한것에 대해 블로그 만들어 올리기, 자신이 한일, 기억 남는일에 대해 사진 한 장과 문장 한 줄로 올리기등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제였습니다. 과제는 홈스테이 집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남는시간이 있을 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과제할 시간도 주고 남는 시간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ctivity	*Strawberry Picking: 스쿨버스를 타고 딸기농장가서 딸기를 따다. 자신이 딴 딸기를 가져가고 싶으면 무게에 따라 돈을 지불하면 되었다. *Cultural Exchange: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쳐주었다.

	<p>*Volunteer at Rotary Festival: 축제에서 자원봉사자를 했다. 아이들 머리 따주기, 인형만드는 것 도와주기 등. 봉사활동 후 축제를 즐기면 된다.</p> <p>*Colour Blast: 길거리 축제인데 차량 통제후 길거리를 달리는 축제이다. 길 중간중간 색이 입혀진 밀가루를 사람들이 뿌렸다</p> <p>*Hiking: 학교 뒤에있는 whitefish island를 산책하였다. 뒷산처럼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였다.</p> <p>*Lake Superior : 세계에서 가장큰 호수중 하나이다. 해변으로 갔는데 물이 정말 깨끗해서 수영하기 좋다. 수영복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p> <p>*Bushplane Museum: 비행기 박물관이다. 큰 규모는 아니다. 비행기 모형들을 둘러볼 수 있다.</p> <p>*Zumba Fitness: 학교 끝나고 선택적인 것인데 한번쯤 도전해볼만하다. 음악이 신나 재밌게 운동 할 수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날씨와 비슷하다고했는데 사실상 한국기온보다 낮았다. 7월달이었는데 한국보다 습하지 않고 기온이 낮아 한국보다 서늘하였다. 비도 가끔 왔는데 우산은 작은 것을 챙겨도 괜찮다. 내가 있을때는 비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다. 햇빛이 강렬해서 선글라스는 필수로 챙겨야 한다. 한국과 달리 밤10시즈음 해가 지기 시작한다.
안전	늦은밤 혼자돌아다니지만 않으면 안전한 것 같다.
숙소	나는 2층방을 사용하였다. 내 방은 혼자사용했는데 쾌적하고 침대도 넓어 살기 좋았다. 거울이 없어서 가져간 거울을 사용하였다. 규칙은 따로 없었다. 먹고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다. 아침, 저녁은 홈스테이 아빠가 해주셨다. 점심은 저녁에 남은 것으로 가져가곤 했다. 아침에 씻었는데 홈스테이엄마와 시간이 겹쳐 조정을해서 씻었다. 저녁을 밖에서 먹고 갈 것 같으면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방문은 항상 열어 두었다. 언제든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문을 닫아놓으면 개인생활을 존중해달라는 뜻이라고 들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홈스테이에서 아침,저녁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점심에는 남은 밥을 가져가서 학교에서 다같이 나눠 먹었다. 라면을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학교안에 카페가 있어 빵을 사먹기도 했다. 카페는 전반적으로 맛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사람이 입맛이 달라 어느정도 고려는 해야 할 것 같다.

교통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45분거리였다. 버스를 갈아타야해서 총 2개의 버스를 이용하였다. 첫날, 이튿날에 룸메가 어디서 버스를 타고내려야하는지 어떤 버스를 타야하는지 알려주었다. 배차간격은 6시(pm)이전에는 30분 간격, 6시이후에는 1시간 간격이었다. 시골이라 버스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버스카드는 일괄적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여주었다. 잃어버린다면 한 달에 약 6만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한국,일본 면세점 쇼핑	약 90000	한국, 일본 면세점 쇼핑
US dollar	약86000	USA를 가게되어 현지은행에서 환전하였다.
현지 쇼핑, 식비등	약 600000	식비, 쇼핑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약 80만원	80만원을 환전해갔는데 남아서 약 15만원을 다시 한국돈으로 바꿨다. 신용카드와 환전한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빛이 강렬하므로 선글라스를 꼭 챙겨가야한다.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 긴팔 긴바지도 챙겨가는게 좋겠다. -쇼핑을 하면 집으로 가져와야하므로 수하물공간, 무게를 조금 남겨가는게 좋겠다. -비가 올 수도 있으므로 우산을 챙기는게 좋겠다. -신발은 운동화, 샌달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 -티켓, 여권, 필기도구 등은 수하물로 부치지말고 기내용가방에 넣는 것이 좋겠다. 작성 시 필기도구 필요. -라면, 햇반등을 조금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 현지음식이 입에 안맞을 경우 유용하다. -비행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마스크가 필요하다. -현지에는 약국이 잘 없으므로 비상약을 챙겨야한다. -모기 스프레이, 버물리등을 챙겨야한다. -와이파이, 수건 등 궁금한내용은 미리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는 낯선 나라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설렘반 긴장 반이었다. 다녀와보니 갔다오기를 정말 잘 한 것 같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정말 좋았다.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중 하나인 '홈스테이'를 통하여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다 가까워서 경험 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서로 언어가 달라 룸메이트와도 영어로 대화했는데 같은 처지라 그런지 더 편하고 금방 친해 질 수 있었다. 가기전에는 3주가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올 시간이 다가오니 3주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리저리 걸어다녀보지 않은 것이다. 버스타고 통학하고 길도 잘 몰라 걸어다녀보지 않았는데 귀국하기 하루 전날에 걸어서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이곳저곳 은근 가 볼 곳이 많았다. 캐나다를 경험한 후 한국에만 있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회를 만들어 이곳, 저곳 다른나라를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사진설명

Rotary festival에서 자원봉사 후 축제를 즐겼다.
 자원봉사는 Puppet(종이 인형)만드는 것 도와주기, 머리 따주기,
 그림그리는 것 도와주기 등이 있었다.



사진설명

Colour Blast이다. 색이 입혀진 밀가루를 뿌리면 지급된 흰 옷에 알록달록하게 묻는다. 차량들은 통제되고 마치 마라톤과 비슷하다.



사진설명

Jade Wellness에 가서 문화교류 자원봉사를 하였다. 젓가락, 종이 부채, 한글이름 쓰기등 한국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사진설명

Homestay family와 U.S.A를 다녀왔다. International bridge와 미시간 주의 Water fall이다.



사진설명

Agawa Rock과 Lake Superior이다. Lake Superior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한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 맑았다.



사진설명

Bushplane Museum이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여 박사도 보고 다양한 비행기들을 관람하고 왔다.